

미성대, ATS 정회원 승격...북미 최고 신학교 대열 합류

선교적 교회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다음 세대 위한 기독교 지도자 양성

미주에 위치한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AEU 미성대)가 지난 달 31일(1월 31일), 부로 북미 최고의 신학교들이 가입된 북미신학교협의회(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2014년 6월, ATS 준회원 자격을 얻은 지 약 9년 여 만에 이룬 쾌거이다.

2001년 1월, 미주성결교회 미주 교단 신학교로 시작된 AEU 미성대는 이번 ATS 정회원 가입을 기점으로 명실공히 북미지역 최고의 신학교 대열에 합류하는 교육 기관으로 서게 됐다.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 본부가 있는ATS는 1918년에 설립됐으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풀러 신학교 등이 포함된 학력 인증 기관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한 270개의 신학교들이 등록 되어 있다. 이제부터 AEU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ATS 소속 학교들과 학점 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을 수 있게 되었다.

총장으로 섬기는 이상훈 박사는 "선교적 리더를 세워가는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2019년 6월 2일에 취임했다. 취임 초부터 미래 교육은 온라인 중심이 될 것을 예견했고 2019년 하반기부터 100%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시스템을 준비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한 AEU의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북미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는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현재 북미 뿐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영어권 현지인 사역자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2022년 가을학기부터는 히스패

닉 프로그램을 개설해 중남미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2023년 봄학기부터는 12명의 미얀마 현지인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캠퍼스를 개설했다.

AEU의 비전과 역량이 확장되는 데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현장을 오가며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인 및 미국 교수진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오가닉 처치(Organic Church)의 저자 닐 폴(Neil Cole), 선교적 교회 공동체(Ecclesia Network) 공동 창립자 JR. 우드워드(JR. Woodward), 조지타운 대학 코칭 센터 디렉터인 에릭 드 니이스(Eric de Nijs) 박사 등 최고의 교수들이 AEU의 비전에 따라 전세계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AEU 미성대는 선교적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명을 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인 신학교로서 ATS 정회원이 된 AEU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 된다.

김민선 기자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 2024년 美 대선 출마 선언

니키 헤일리(51)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지사가 14일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보수적인 공화당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라 38살에 최연소 주지사가 된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출마 동영상을 올렸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그는 영상에서 "어린 시절의 난 흑인도 백인도 아니라 그저 달랐다"며 "차이가 아니라 비슷함에 집중하란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2015년 찰스턴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성경공부 도중 총격이 발생해 9명이 살해된 대량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위대하게 만든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돌아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화당은 지난 8번의 대선 중 7번 패배했다.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조 바이든의 기록은 끔찍하지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계속 계속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워싱턴 기득권층을 비판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사회주의 좌파는 역사를 다시 쓸 기회를 노린다. 중국과 러시아는 진격 중이다. 그들 모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며 "나는 괴롭힘을 참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재정적 책임을 재발견하고, 국경을 확보하고, 국가와 자부심, 목적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 헤일리 전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출마를 발표했다.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 트위터

위해서는 80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고령의 트럼프(76)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80)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던 헤

일리 전 주지사는 대선 출사표에서도 세대 교체론을 내세웠다.

트럼프 정권에서 주 유엔 미국대사를 지냈던 헤일리 전 주지사의 출마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녀가 전화로 대선 출마를 고려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년전 헤일리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면 대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승낙을 얻고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헤일리의 지지율은 공화당 내에서 3.9%에 불과하지만, 미 언론은 "그의 출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김양재 목사와 함께하는
제2회 **THINK** 목회 세미나
미주

■ **일시:** 2023년 3월 9일(목)-11일(토)
목: 2pm-9:20pm, 금: 10am-9:20pm, 토: 10am-3:30pm

■ **장소:**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 **참가자격:** 담임목사와 동반하는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지도자
(사모, 부교역자, 평신도지도자는 담임목사 없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단, 이전 큐티목회 세미나 참석교회는 개별참석이 가능)
■ **회비:** \$50 ■ **주최:** 미주 QTM

■ **김양재 목사 말씀집회 일정** * 아래는 THINK 목회 세미나와 다른 말씀집회 일정입니다.

3/5(주일)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1부: 8am, 2부: 10:30am, 특강: 1:30pm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 818-882-9191

3/8(수) 칼보리산교회 (담임목사 심상은, OC교협 회장)
10am(세미나), 7pm(말씀집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714-722-4805

3/12(주일)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태형)
1부: 7:30am, 2부: 9:30am, 3부: 11:30am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3/19(주일)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
1부: 8am, 2부: 11am
9806 Arrow Route, Rancho Cucamonga, CA 91730 / 909-945-9191

김양재 목사 서울대학교 용인대학 피아노 전공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박사
(前) 서울예총교동대학 교장사
(前) 종신대학교 교장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
큐티선교회 이사장
KOSTA 국제이사

SCAN ME

박성규 목사 “대부흥은 한 사람의 기준부터 시작”

최근 미국 켄터키주 소재 애즈베리대학교 (Asbury University) 채플에서 시작된 부흥이 지역에 크게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뉴욕을 찾은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아주사부흥운동과 웨일즈부흥운동 등을 언급하며 세계교회사에 있어 주목할만한 부흥운동의 시작은 한 사람의 기준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준성 목사) 주최로 개최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강사로 초대된 박성규牧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라!' (마25:44)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세미나 마지막날인 15일 박성규 목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애즈베리대학교의 부흥운동을 의식한 듯 "아주사 대부흥의 시발점인 윌리엄 시무어 목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면서 "어느 정도 기도가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무어 목사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그는 5년 반을 더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눅7:1-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뉴욕교회 주최로 열린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기독교일보

을 전했다.

박 목사는 윌리엄 시무어 목사의 아주사에서의 설교가 매우 특별하거나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전과 같은 설교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동안 농축되고 농축된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웨일즈부흥운동에 대해서도 박 목사는 이반 로버츠 목사의 기준을 주목했다. 12살 때

부터 탄광에서 일을 시작했던 로버츠 목사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성경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웨일즈의 부흥을 소망했다.

로버츠 목사는 모리아교회에 가서 설교하라는 음성을 듣고 그곳 담임의 계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한 끝에 겨우 기회를 얻어 수요일에 이후 남아있는 17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박 목사는 "로버츠 목사의 설교도 매우 단순했다. 성령을 받아

야 새롭게 된다는 것과,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악한 습관을 떨리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전부였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17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니까 바로 50명, 그 다음 100명이 되고 5달 만에 10만 명이 모여들게 되고 이후 영국에서 20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웨일즈부흥운동은 인도와 아시아 특히 한국 평양대부흥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박 목사는 "부흥운동의 사례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매달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마디에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새벽기도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마지막에 들어 쓰실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귀한 것이다. 아주사처럼 또 평양 장대현 교회처럼 뉴욕을 뒤집을 그 한 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동양선교교회,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에 협력



동양선교교회 협력 선교사인 튀르키예 올한 목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동양선교교회는 협력선교사로 지원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올한 목사(삼순교회)를 통해 지원자인 가젠타프 지역을 돕기로 했다.

동양선교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마련한 5천 달러의 긴급 재난 성금을 보내고, 현지 올한 목사의 보고를 받은 후 2차 이재민 구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훈 목사는 "우리의 정성과 격려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고 이재민이 된 아동과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주민들을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사순절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서 추천

미국의 기독교대학 캠퍼스에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사회에 만연한 영적 어두움의 영향력을 실감해 온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2월 8일, 켄터키 주(州) 월모어에 위치한 애즈베리대학교의 주중 채플 후,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 계속 예배했고 이것이 삼시간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부흥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믿는 이들은 이런 희망적 소식을 접할 때, 부흥의 핵심에는 다른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위치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들,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해 온 찬란한 사유와 체험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에 분명하고도 주저함 없이 내려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이 앉으실 보좌에 개인적 감정, 생각, 의지를 위치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월 22일부터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된다. 여러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을 지키거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기도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막상, 이 기간 동안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히 이를 돕기 위해 쓰인 서적도 상대적으로 드물고, 그나마 출간된 기존 자료들도 밀도 있는 말씀 해설과 묵상을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신약학자 이장렬 박사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시리즈, I, II, III권 모두 신약 복음서 본문에 대한 밀도 있는 해설과 저자 자신의 생생한 묵상을



이장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시리즈 I, II, III

답사 사순절 기간 동안 혹은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교회, 소그룹, 성도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친절하면서도 밀도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수가 쓴 책이라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몇 페이지지만 읽어봐도 그것이 편견이었음을 알게 된다. 40일 묵상 시리즈 세 권 모두 해설과 묵상 내용이 깊이 있고 탁월할 뿐 아니라 가독성이 뛰어나 독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아울러 매일의 묵상 분량마다 영적 사색과 기도를 돕는 묵상 질문과 '한 줄 기도'가 더해져 이해를 더한다.

시리즈 각 권 별 특징도 눈에 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I>은 누가복음 22-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사를 짧은 본문 단위로 나눠 깊이 있게 묵상하도

록 기획되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II>는 요한복음 후반부(13-20장)를 단락(문단)별로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의 40일 묵상 III권은 마태복음 전문가인 이종재 박사와 공저했는데, 마태복음 본문 전체(마태복음 1-28장)를 40일간에 걸쳐 통독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또는 부활절을 앞둔 40일간, 교회 전체와 소그룹과 개인이 성경에 집중하는 말씀 묵상 여정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사순절 특별한 기도회를 성경묵상의 여정과 통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40일간의 묵상> I, II, III 시리즈는 그 가운데 친절하고도 믿음직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김민선 기자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러시

뱅크러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원)제미발행기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권협의회 이사장

“새로운 20년을 향해... 이 땅을 거룩한 도시로”

미주성시화운동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드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3전 운동’으로 거룩한 도시 재건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주성시화운동본부의 사역에 동행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미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며 거룩한 기도운동, 전도운동, 치유와 회복의 성시화운동이해를 거듭할 수 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기를 소원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운동을 모티브로 삼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성시화 운동(Holy City Movement)은 한국에서는 1972년 춘천에서 故 김준곤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미주성시화운동은 2003년 남가주사랑의 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다. 그동안 LA성시화대회, LA홀리클럽 정례모임 등 LA 성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주도해 왔다. 2008년 10월엔 LA에서, 2011년과 2012년에는 패사디나 로즈볼과 크렌셔 크리스찬 센터에서 대규모 다민족연합기도회를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다민족연합기도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사랑의 쌀 나눔 운동, 한인 자녀 고국 체험 프로그램, GKYM 선교대회를 주최했으며, 청소년 부흥운동인 Higher Calling Conference, 차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 동성애 관련 법안과 차별 금지법 저지 운동, 우크라이나 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경진 목사(공동회장)의 인도를 맡았고 백은학 장로(홀리클럽회장)의 기도, 최순복 권사(부이사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진유철 목사가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면 승리한다”(빌1:3-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진유철 목사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작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 때 마침내



미주성시화운동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성시화운동의 사역 확장을 위해 힘찬 화이팅을 외쳤다 ©기독일보

승리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을 거룩하게 세우자”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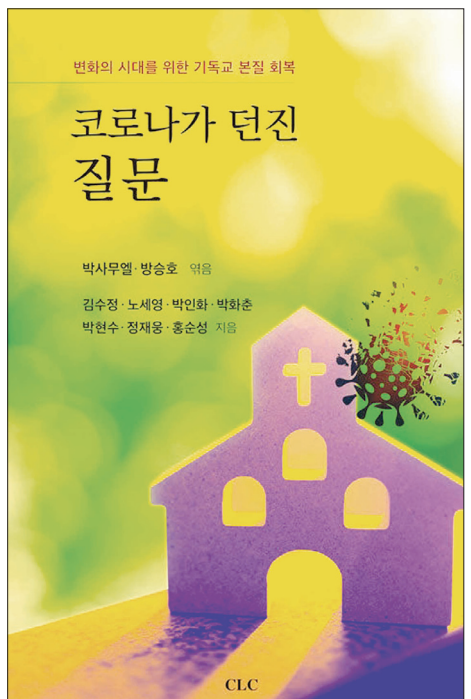
감사예배에서 격려사를 전한 민종기 목사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천사의 도시 LA 등 거룩한 도시들로 세워졌었다”며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미국과 이 땅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한국교회총연합회 이영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최규남 박사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재권 장로(이사장)의 광고에 이어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신간] 코로나가 던진 질문 “변화의 시대를 위한 기독교 본질 회복”



센트럴 신학대학원 한국부 9명의 교수들이 집필

전통으로 시대의 변화를 해석해 온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여 변화의 시대를 대처해 나아가지 독자들에게 함께 고민하는 책이다. 코로나 때문에 던져진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다.

책 속에서 저자들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 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의 범죄와 탐욕에 그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정으로 변질된 모습에서 거룩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가 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질서의 세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미래는 있는가? 그것은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 그리고 신학교육 개혁에 달려 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미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 또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사람의 존재 의미를 폭넓은 상상력과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한다면 인간 목회자가 필요 없을 미래의 도래는 막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인간 목회자의 필요성은 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끝으로 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물질의 투자는 단지 부모가 어느 정도 물질의 풍요를 포기하고 자녀와 시간을 가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그들의 물질적

풍요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가리킨다.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공부와 좋은 이력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시간을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바꾼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본 도서는 센트럴신학대학원 한국부 9명의 교수들에 의해 집필됐다. 저자들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변화하는 미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사역을 해야 할지 지혜를 얻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 심플 스튜디오 워십 9 예배자 초청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아홉번째 심플 워십이 2월 25일(토) 저녁 7시, 오렌지 카운티 세리토스에 위치한 원하트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심플워십은 ‘준비하는 사람은 힘을 지만 하나님은 편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모토로, 다시 한 번 남가주 지역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이다.

6개월만에 드러지는 심플워십 9은 2023년 첫 심플워십이자, 원하트 미니스트리 스튜디오 오픈 기념으로 드러져 더욱 뜻 깊은 예배가 될 예정이다.

예배 참여 인원은 선착순 20명이며, www.oneheart-usa.com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213-347-5080으로 하면 된다.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2.90%이자가능

2.9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	------------------------------	------------------------------	--------------------------------	-----------------------------------	--------------------------------	--------------------------------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애즈베리 부흥,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소망”

두 딸 애즈베리대 재학 중인 장기영 교수가 소개하는 현장

미국 켄터키주 애즈베리 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학생들의 예배와 기도가 며칠째 계속되고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이러한 열기가 전파돼 인근 대학교에서도 기도와 예배가 이어지면서, ‘부흥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예배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애즈베리대학교 맞은편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두 딸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장기영 교수(성결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기도의 응답’이자 눈물나는 부흥의 현장이다.

장기영 교수는 “애즈베리라는 곳의 역사와 공동체 분위기를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전에 일으키셨던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며 “저희의 기도가 다른 분들이 쌓아온 기도에 비하면 0.1%도 안 되겠지만, 애즈베리에 자녀들을 보낸 분들이나 과거 애즈베리 부흥을 경험하거나 잘 아는 분들은 모두 그러한 부흥을 사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야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학생들 모습. 채플에 너무 많은 이들이 몰려 대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페이스북

2004년부터 3년 간 애즈베리 신학교(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대학원(MA) 과정을 수학한 장기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흥은 길 건너편에서 건너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과거 이곳에서 일어난 부흥이 여러 차례 신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시작돼, 신학교가 동참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이라며 “애즈베리대학교와 신학교 둘 다 과거 성결운동의 열매로 세워진 학교이 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대학교와 신학교 모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모두 경건하시고, 학교는 다르지만 서로 교류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대

학교 졸업 후 맞은편 신대원으로 가는 비율도 높았다”며 “신대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다 애즈베리대학교 총장을 18년 하신 분도 있다. 20세기 성결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꼽히는 데니스 킨로(Dennis F. Kinlaw) 총장님이다. 1970년대 일어났던 부흥은 그분이 총장이실 때 일어났다”고 말했다.

애즈베리대학교에 있는 두 딸과도 관련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그는 “부흥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전해들었다. 학생들 몇십 명으로 시작된 모임에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점점 외부에서 오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애즈베리대학교에서 부흥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과거 1970년대에 부흥을 경험했고, 이런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

애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5년과 1908년을 비롯해, 1950년과 1958년, 1970년 등 반복적으로 예배와 기도 운동, 즉 부흥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인근으로까지 퍼진 적이 있다.

장기영 교수는 “아이들 말로는 친구들 얼굴이 달라졌다고 한다.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난리났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간증들을 봐도 초기에는 몇몇 분들만 올렸지만, 지금은 교수진과 목회자, 외부 참여자들도 ‘그곳에서 특별한 평안을 느꼈다,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회개했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과거 부흥운동에서 나타났던 외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내적 현상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첫 시작이 오순절적이든 어떻게 규정짓는 것을 떠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부흥이 없었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퍼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소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시더빌대학에도 ‘예배 부흥’...자발적 전도로 이어져



올해 2월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시더빌대학 채플에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시더빌대학 페이스북

최근 미국 켄터키주 소재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 채플에서 부흥이 시작된 가운데, 오하이오주의 기독교 대학인 시더빌대학교(Cedarville University)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와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

토머스 화이트(Thomas White) 시더빌대학교 총장은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부흥인지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아침, 채플에서 학생들이 시편 86편을 읽던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자 우

리는 잠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찬양하는 동안, 어떤 식의 (제단) 호출이나 초청이 없이도 몇몇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다시 무대로 올라간 그 시점에 설교는 끝났고,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며 “채플 예배가 끝날 무렵, 제단에는 기도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몇몇은 울고 있었으며, 다른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화이트 총장은 오전 10시 45분에 끝나는 정규 채플 시간 이후에도 “예배는 계속되었다”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도와 예배를 위해 다음 수업 시간까지 머물렀으며, 일부는 수업을 마치고 채플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시더빌대학교의 채플 예배에는 3천 명이 참석하고 있고, 그중 1천 명은 기도와 찬양을 위해 더 오랫동안 채플에 머물렀다. 화이트는 “내가 저녁을 먹으러 오후 5시 30분에 집에 갈 때에도, 여전히 일부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8시 기도를 하기 위해 채플로 돌아왔다”며 “그날 저녁 약 1천 명의 학생들이 다시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며 밤 10시가 넘도록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4일, 화이트 총장은 학생들을 제단으로 초청했고, 그날 저녁 8시에 예정

에 없던 저녁 예배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도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11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다. 15일에는 소명을 받은 시더빌 대학생 중 일부가 전도를 위해 지역 내 다른 대학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에 화이트는 “주님께서 그 대학들에 굉장한 부흥을 주시길 기도한다”며 기대했다.

시더빌대학교의 자발적 예배는 애즈베리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뒤에 시작됐다. 화이트 총장은 두 영적 부흥의 유사점에 대해 “애즈베리처럼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애즈베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곳에서 일하신 것은 아니”라며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일하시며 이것은 위대하다. 우리는 그분이 전국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행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커피브레이크’ 제14회 컨퍼런스 등록 시작

7월 12-15일 애나하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55개 교단에서 전도와 제자양육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제 14회 국제컨퍼런스가 7월 12일 부터 15일 까지 애나하임에서 열린다.

2월 15일부터 참가 등록이 시작 돼 조기 등록 마감은 3월 31일이며, 등록 마감은 5월 10일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수, 처음과 마지막”이란 주제로 요한 계시록 1장에서 3장을 본문으로 한다.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방법, 소그룹 인도의 실제적인 방법과 소그룹 모임 참여도 포함되어 풍성한 나눔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951-444-0150

김민선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교수진		초청 강사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보수 기독교 대표하는 한기총, 제자리 찾도록 최선”

[인터뷰] 제28대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정서영 목사가 14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회에서 제28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총대들은 단독 후보인 그를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이로써 한기총은 법원이 지난 2020년 5월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 후 약 2년 9개월 만에 정상화 했다.

그러면서 교계 안팎의 시선이 한기총에 쏠리고 있다. 지난 1989년 창립한 한기총은 비록 오늘날 그 위상이 전과 같지는 않으나, 한국교회 대표적 보수 연합기관으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한기총 신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만나, 한기총 안팎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한기총 대표회장직이 오랜 기간 공석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기총 안정화를 위해 하셔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약 3년 간 한기총은 그냥 이름만 다스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

습니다. 이에 한기총을 정상화 시켜 한국교회를 살려보고자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총이 정상화 하면서 보수 연합기관(한기총·한교연·한교총) 통합 논의에도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 한기총이 잘못해서 한기총을 정상화 시키려고 만든 것이 한교연(한국교회연합)입니다. 또 한교연과 한기총을 통합시키려다 안되니까 생겨난 것이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기총 때문에 한교연과 한교총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만 제자리를 찾는다면 통합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교단들 안에는 한기총에 대한 정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기총이 자리를 잡으면 한기총으로 복귀하는 교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한기총이 힘을 얻게 되고 지지부진했던 연합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겁니다. 연합기관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겠죠.”

-한교연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교총에 대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



한기총 제28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정서영 목사. ©CHTV

십니까?

“한기총과 한교연은 모두 보수적 연합기관으로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저는 과거 한교연 대표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교총은 중도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교회에서 중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교총의 이런 점이 향후 통합 논의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될 듯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현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등과 관련된 독소조항이 있는 이 법이 만약 제정된다면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역차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 문제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특히 기독교 설립 이념을 가진 학교들이 그 이념을 제대로 실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과거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변하며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 왔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고,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기총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역시 다른 기관은 몰라도 ‘한기총’ 하면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나쁜 한기총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기총이 지금부터라도 잘 하면 한국교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단 한기총이 정상화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표회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한기총의 문제는 곧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이 잘못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기총의 책임이 큼니다. 한기총이 속히 제자리를 찾아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진영 기자

‘인간극장’ 표인봉 “목사 된 계기? 김원희·김용만과의 아이티 선교”

표인봉 목사가 최근 KBS 1TV 교양 프로그램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에 연이어 출연하며 목사가 된 이유를 밝히는 등 근황을 전하고 있다. ‘개그맨 표인봉의 두 번째 무대’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이번 시리즈는 총 5부작으로 제작됐으며 현재 2부까지 공개됐다.

13일 1부 방송에서는 표인봉 목사가 특정한 교회를 전담해 시무하진 않지만, 초청받은 교회에서 설교와 간증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뒀다.

방송에서 연예인 경력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얻은 표 목사는 “제 인생이 시속 300km로 달리던 KTX와 같았다. 그 속도가 0km가 되던 시기가 있었다. 집이 아파트인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 귀가해서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 목마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걸 발견했다”고 간증했다.

표인봉 목사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답살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니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했다.

표인봉 목사의 배우자 유정화 사모는 “저희 집은 불교였다. 좀 독실한 불교였다”고 했다. 그러자 표인봉 목사는 “아내가 저를 심하게 사랑했다. 그래서 ‘저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했다.



©KBS

이후 유 사모는 “(남편이 갑자기)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하고 물었더니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했다. ‘아니, 왜?’라고 물었더니 ‘너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 생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표 목사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다 도와 주실 거라고 했다”고 말을 이었다.

유 사모는 “대학원 졸업식에 가서 ‘축하한다’ 했다. 여기서 끝내겠지 생각했는데 목사 고시를 보겠다고 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왜?’라고 물었다. ‘나는 정말 (목사) 사모감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아직도 샤넬백이 들고 싶다’고 했다. ‘나 아직 못 내려왔다’

고 그랬다”며 “(그런데)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네가 원치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받으라’고 했다”고 했다.

14일 2부 방송에서는 표인봉 목사가 신학교를 가기 전 아이티 선교를 제안했던 김원희 씨와 거기에 동행했던 개그맨 김용만이 출연했다. 또 표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화선교단체의 회원인 이연홍 미술사와의 봉사 근황을 전했다.

표인봉 목사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2013년 아이티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다. 그때 새로운 세상을 본 것 때문에 (목사가 됐다)”며 “복기를 해 보면 김원희 씨가 저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표 목사는 “저는 되게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 같다. 마음이 딱딱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고 잘 따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치에 안 맞으면 안 하려 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많았다”며 “두 분을 만나고 어

떤 걸 느꼈느냐면, 기독교에서는 ‘공홀하다’고 하는데, 주변에 처지가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금방 드러나는 분들이다. 처음에는 약간 ‘왜 그게 되지?’ 약간 의아한 것도 많았다”고 했다.

이후 봉사활동을 간 표인봉 목사는 “방송도 하고 행사 들어오면 MC도 하고 그 수입으로 산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 목사가 ‘부캐’인 거 같은데, 목사로서는 수입이 0이다. 그냥 하는 거다. 주변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유정화 사모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좋다”며 “이런 봉사활동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표인봉 목사는 지난 2018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캅)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후 성경 속 이야기와 찬양이 어우러진 기독교 뮤지컬 ‘마마누요’를 제작했다. 김신의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3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은퇴 후 첫 신간 선보여

베스트셀러 작가인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새들백교회 담임직에서 은퇴한 지 약 6개월 만에 신간 'Create to Dream: The 6 Phases God Uses to Grow Your Faith'를 선보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이퍼콜린스 크리스천 퍼블리싱(Harper-Collins Christian Publishing)의 존더반북스(Zondervan Books)에서 제작한 이 책은 2023년 4월 11일에 출간될 예정이다.

하이퍼콜린스는 "이 책에서 워렌은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며 영적 성숙을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6단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켰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꿈꾸셨

던 모든 것을 향해 그분과 함께 동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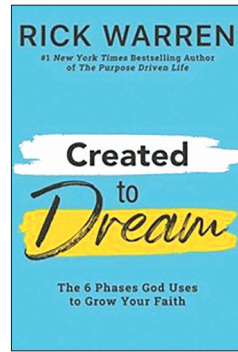
또 "성경과 워렌 목사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 있는 독자들을 만난다. 워렌 목사는 꿈에서부터 결심, 지연, 어려움, 막다른 골목 및 구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에게 소망, 기도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각 단계를 안내한다. 꿈은 일회성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제목은 워렌 목사가 2015년 파스터스닷컴(Pastors.com)에 쓴 'How God Grows You Through the 6 Phases of

Faith'라는 책에서 건넨 조언과 유사하다.

이는 워렌 목사가 10년 만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을 포함해 1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2020년까지 85개 이상의 언어로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

워렌 목사는 최근 매주 1만5천 명 이상이



릭 워렌 목사의 신간 © 아마존

출석하는 남가주 남침례회 대형교회인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과거 아내 스테이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에코닷교회(Echo.Church)를 이끌던 앤디 우드 목사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다.

한편 새들백교회는 수 년에 걸쳐 HIV/AIDS, 우울증 치료 및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역 및 그룹의 개발과 기독교 자원에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워렌 목사는 최근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빠른 성장은 암이 될 수 있다"며 "교인 수를 늘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순종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아이오와주, 초교 3학년까지 동성애 교육 금지법 추진



브리스톨 동성애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브리스톨 동성애 축제

미국 아이오와주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 기관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의회는 최근 '법안 제1145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이오와주에 소속된 학교 관계자들과 교직원들은 부모의 허락이 없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 이외 성별이나 별명으로 아이들을 부르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 정체성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설문조사·교외 활동·홍보도 금지하고 있다.

이어 "학군 소속 교직원 및 관계자들은 미성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학생의 공식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 이외 별명이나 호칭을 사용해 학생을 부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벌리 레이놀즈 공화당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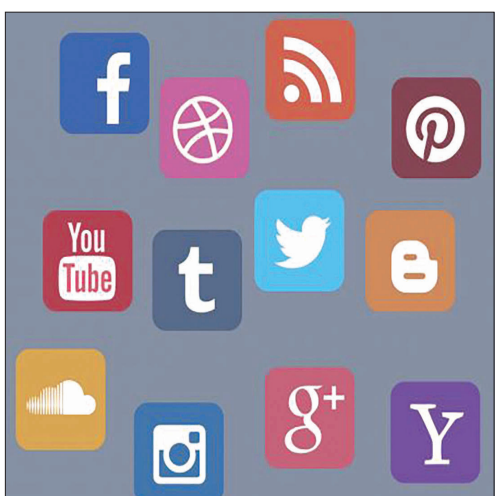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조기에 확인하도록 하는 '성별 확인 조기 관리'를 지원하는 등 성적 다양성 정책을 확산 중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이러한 기조에 반대에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미 사우스다코타주 의회는 최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수술 및 실험적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의 외모나 인식이 그들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은 그들의 외모를 변경하거나 성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상적인 사춘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모든 약물의 제공 및 화학적 거세, 자궁 적출, 난소 절제, 고환 절제, 음경 절제 및 정관 절제를 포함한 불임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소셜미디어 ©픽사베이

'NFL 슈퍼볼 우승' 주축 4인방,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계획 신뢰했다", "3일전 꿈 재연돼" 선수들 고백 쏟아져

올해 4년 만에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미국프로풋볼(NFL)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선수들이 우승 직후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치프스는 12일 밤 치러진 챔피언 결정전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38-35로 제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4쿼터 막판 27야드 필드골을 성공시킨 치프스의 킥어(kicker) 해리스 커버는 경기 후 기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시즌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친목단체 '콜럼버스 기사단'(Knights of Columbus)의 회원인 그는 챔피언전을 앞둔 주간에 스포츠 스펙트럼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오늘날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른 모든 분위기를 정하며, 모든 것은 이 일 아래에 속한다. 믿음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해낼 힘을 준다"고 했다.

치프스의 와이드 리시버(wide receiver) 카다리우스 토니는 13일 새벽에 올린 트윗에서 우승에 대해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생은 빠르고 실제적"이라며 "당신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글을 남겼다.

토니는 뉴욕 자이언츠의 선수로서 2022년 NFL 시즌을 시작했지만 시즌 중반에 치프스로 팀을 옮겼다. 24세인 그는 챔피언전



올해 NFL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선수들이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NFL 공식 유튜브 캡처

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시즌 경기 역사상 가장 긴 펀트 리턴(Punt Return)인 65야드를 조율했다.

한편, 13일 아침 ABC 방송에서 사회자인 마이클 스트라한이 치프스의 라인배커(linebacker) 닉 볼튼에게 경기의 전세를 뒤집은 3쿼터 활약에 대해 묻자, 그는 "공이 손에 완벽하게 들어와 엔드존(end zone)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볼튼은 이 상황이 자신의 "3일전 꿈에서 일어났다"면서 "실현되었다는 것이 초현실적이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다.

볼튼은 지난주 스포츠 스펙트럼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간증하며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앤디 레이드가 이끌던 치프스는 그해 슈퍼볼 챔피언전에서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를 꺾고, 첫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치프스는 2021년에도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탬파베이 버커니어스에게 패했다.

올해 정규 시즌과 챔피언전 최우수선수상(MVP)을 동시에 거머쥔 치프스의 쿼터백(quarterback) 패트릭 마흐스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과 발목 염좌의 빠른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밝혔다.

마흐스는 2주 전,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 챔피언십에서 신시내티 벵골스를 꺾은 뒤, CBS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부상을 극복하도록 이번 주에 내 몸을 치유하셨다"라며 "그분이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美 미주리주 의원,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 도입

왕따나 성폭행 등 잠재적 피해 보호하기 위한

미국 미주리주의 공화당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상원의원이 16세 미만 어린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노출로 생기는 해악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하울리 의원은 14일 'MATURE(Making Age-Verification Technology Uniform, Robust, and Effective)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는 개인이 연령 확인을 통해 16세 미만의 개인에게는 계정 생성을 허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고 앱을 사용하기 전 법적 이름, 생년월일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생성된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은 예외로 한다.

이 법안은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개인의 신원과 나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 전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울리 의원은 또 10년 동안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추적하는 연구를 제안한 '연방 소셜미디어 연구법'(Federal Social Media Research Act)이라는 두 번째 법안도 도입했다.

그는 "아이들은 매일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선 소홀히 여기고 개인 정보를 수익화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착취와 조작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령 제한으로 시작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에 진행됐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04년 페이스북이 처음 출시됐을 때 대상으로 한 사용자는 대학생이었다. 나중에 고등학생, 현재는 13세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했다. 트위터와 틱톡도 역시 13세의 아이들이 계정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와 앱이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왕따나 성폭행 등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노력이 최근 시작했다.

지난 13일 일리노이주 딕 터빈(Dick Durbin) 민주당 상원의원, 코네티컷주 리차드 블룸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 하와이주 맥시 히로노(Maxie Hirono) 상원의원은 온라인 아동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인들은 인터넷 회사에 자신이 13세 이하일 때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터빈 의원은 "인터넷 회사는 어린이를 포함한 미국인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특히 온라인 사용의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후 12:50
주일예배 2부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자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dk@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참기교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2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회 오후 8: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일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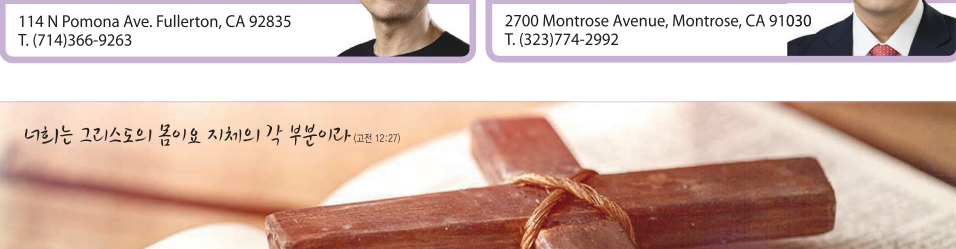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체드(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새벽예배) 월요일(아)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한정영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 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오픈)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로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현 담임목사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리타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성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kvum.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wgmc.org

주일 1부 오전 8: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1부예배 오전 9:00 JCCC Academy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영화 '워룸' 제작자, 내년 새 기독교 영화 개봉



알렉스와 스티븐 켄드릭 형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기독교 영화 제작자인 알렉스와 스티븐 켄드릭(Alex Stephen Kendrick) 형제가 내년 8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 여름 2024년 8월 23일 북미 지역 개봉될 예정인 이 영화는 켄드릭 형제와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의 어필 필름(AFFIRM FILMS)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감독은 알렉스 켄드릭이, 각본은 스티븐 켄드릭이 맡았다.

켄드릭 형제는 최근 진행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제목과 줄거리 등 세부 사항은 비밀이지만, '모든 관객'에게 '유머와 감동을 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어필 필름의 부사장 겸 책임자인 리치 펠루소(Rich Peluso)는 "처음 두 사람에게 영화와 관련해 연락했을 때 이미 각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었고, 그것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격려와 희망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켄드릭 형제는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지역교회의 사역으로 독립 제작사인 셔우드 픽처스(Sherwood Pictures)를 설립해 영화 제작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오버커머'(Overcomer), '페이싱더 거인츠'(Facing the Giants), '파이어프

루프'(Fireproof) 등 신앙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영화를 제작했다.

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된 그들의 2015년 히트작 '워룸'(War Room)은 1,500개 이상의 극장에서 개봉해 전 세계적으로 7,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스티븐 켄드릭은 최근 진행된 CP와의 인터뷰에서 "영화를 통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했다.

커크 캐머런이 출연한 그들의 최신 영화 '라이프마크'(Lifemark)는 낙태와 입양 문제를 다뤘다. 이 영화는 작년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개봉했다.

스티븐 켄드릭은 "성도들과 교회, 지역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소녀들,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태아,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위에 나선 가족들에게 아름다움과 긍휼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영화의 주제가 민감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과 긍휼의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두 형제는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영화 제작 외에도 첫 번째 제작한 영화 '플라이휠'(Flywheel, 2003)의 재개봉 및 대학생들을 위한 영상 커리큘럼인 '하트 오브 어 필름메이커'(Heart of a Filmmaker)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서명



크리스티 넘(Kristi Noem)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넘 공식 페이스북

미국의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넘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실험적 사춘기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 1080)에 13일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해롭지 않은 도움'(Help Not Harm)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올해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넘 주지사는 이날 서명에서 "사우스다코타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법안으로 우리는 해롭고, 영구적인 의료 절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저는 항상 사우스다코타의 다음 세대를 지지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는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7번째 주가 되었다.

새 법안은 "의료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성별에 대한 외모나 인식이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성별에 대한 외모를 바꾸거나, 성별 인식을 바꾸는 것을 시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금지된 사항으로는 "사춘기 차단제 사용"과 "동일 나이와 성별의 건강한 개인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 투여", "생식기 제거 또는 불임 수술"이 포함된다.

다만 법안은 "해결할 없을 정도로 모호한 외부 생물학적 성징을 포함해, 의학

적으로 검증 가능한 성 발달 장애를 가진 태어난 아동", "성 발달 장애로 진단된 미성년자" 또는 "금지된 조치나 절차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감염, 부상, 질병 또는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 의료인은 올해 7월 1일 이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시작했고, 미성년자의 약물이나 호르몬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약물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테리 실링 APP 회장은 서명에 찬사를 보내며 "트랜스젠더 산업이 취약한 아동을 공격하는 것은 끔찍하다. 아이들은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험하고 삶을 바꾸는 절차에 뛰어들었다"라며 "부모들은 현혹되거나 심지어 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실로 공포스러운 쇼"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이 의료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큰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며 "트랜스젠더 산업과 싸우는 이 운동의 기세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제 막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동의 트랜스젠더 시술을 지지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South Dakota, ACLU) 사우스다코타 지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지사의 서명을 비난했다.

ACLU는 "이번 금지는 사우스다코타인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나,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변화할 트랜스젠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주요 지원을 차단할 것"이라며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을 대신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BEST SELLER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 75년 신뢰의 건강파트너입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판매점

본 판매처의 제품은 올코샵이 보증하는 100% 정품입니다.

한국인 영양에 딱!!
식습관이 다르면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9년 연속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항산화 에너지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리비스타 종아리 압박밴드

BEST SELLER

이제 주무르지 마세요

20-30mmHg의 단계적 압박

1+1

- 혈액순환 개선
- 혈류 촉진
- 붓기 완화
- 통증 완화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100% 국내생산

1

\$45 \$38

두껍고 둔탁하게 일지 말고 무봉제 기술을 알고 가법게!

“바른 자세” 이렇게 쉬웠어?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착용 전

착용 후

하나사면 하나공짜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CHOUETTE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퍼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Ch 기독샵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공식판매처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공식판매처
CHARMZONE NC1

교회단체 행사선물
도소매 판매점 문의

erom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탁월한 목수에게 배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마 13:55상). 또한 예수님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막 6:3상).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불린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약혼자였고 남편이었습니다(마 1:18, 20). 저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직업 가운데 목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을까 질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H. 마이클 브루어는 저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답변해 줍니다.

“목수는 집을 짓고 고친다. 필요한 것을 짓고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들이 바로 목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는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의 소명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 예수는 아버지 요셉이 자신의 목공소에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랐다. 필요한 것을 짓는 일과 부서진 것을 고치는 목수의 두 가지 일은 어린 예수의 인생관과 그의 소명감을 형성해 주었다.”(H. 마이클 브루어, 『예수님의 숨씨』, 시냇가의 심은나무, 13쪽)

예수님은 이 땅에 고치시는 일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들과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또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목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무입니다. 목수는 좋은 재목(材木)을 찾기 위해 산을 찾아다닙니다. 목수는 산을 찾아다니다가

좋은 나무를 만나면 표시해 둡니다. 바로 벌목(伐木)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기다립니다. 나무가 잘 커서 쓸 만한 재목이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목수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무가 잘 컸을 때 아주 적합한 때에 필요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키워서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탁월한 목수는 나무 조각까지 거의 버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나무는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목수는 가능한 모든 나무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눈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쓸모없다고 여긴 사람들을 선택해서 쓸만한 인물로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고, 그 당시 죄인이라고 낙인찍혔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나무들을 아주 적합하게 사용할 줄 아는 탁월한 목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

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행 4:11).

탁월한 목수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목수가 하는 일 중의 하나는 견적을 내는 일입니다. 또한 설계하는 일입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칩니다. 준비가 잘 되면 다음 단계의 일은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데 실패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은 크지만 준비를 위한 헌신이 약합니다. 성공을 위한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을 준비하기 위한 의지입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명만 교수는 “칼을 쓰는 시간보다 칼을 가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그래야 단칼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그래야 나뭇결을 따라 아름다운 대패질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하면 쓰레기를 만듭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 명작이 탄생합니다. 목수 되신 예수님의 지혜는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배우고 실천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금식, 회개, 절제 및 영적 훈련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四旬節)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은 교회가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며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부활절인 오는 4월 0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기독교에서는 ‘사순절(Lent)’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순절(四旬節)입니다. 사순절(四旬節)은 명칭 자체가 ‘40일(라틴어로 quadragesima)’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復活節) 새벽에 침례 혹은 세례가 베풀어졌고, 침례 혹은 세례 예비자들이 ‘회개’를 통해 침례와 세례를 준비하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침례나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받은 침례나 세례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갱신하는 일에 힘썼던 기간이 바로 사순절(四旬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의 수요일과 부활절 날짜는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독교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 이었고, 노예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40년이었으며,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를 성

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도 부활을 앞둔 40일을 시작하면서 첫날은 항상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 시작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四旬節)의 첫날은 항상 교회들이 재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는 인도자가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순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시작한 목적은 인간의 죄의 유한성과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 위한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숫은 보통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가지를 태워 만드는데 1년 전 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

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써의 모습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함 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순절(四旬節)의 주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苦難)과 이를 대하는 성도의 참회(懺悔)로써 전통적으로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試驗)과 유혹(誘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죄를 물리치는 삶을 실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순절의 결단이 일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의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결단을 통해 우리가 신앙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四旬節) 기간을 시작하며 누군가를 위해 풀어주고, 풀러 주고, 놓아주고, 꺾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더욱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 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ello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면 승리한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눅 2:11-12절) 수 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가 오시는데 이불이 없어서 대충 옷으로 두른 “강보”에 싸인 지독하게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도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애를 낳아 좋은 침대에 두는 것이 상식인데 메시야가 “구유”, 말 밥통에 누워있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기에 나팔을 불고 웅장한 환영식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하게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 “아기”로 오셨습니다. 한 마디로 유대인이 상상하는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첫 출발도 초라했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세였더라”(창 12:4) 나이가 75세에 낯선 땅의 이민자가 된다는 것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같이 힘없고 낯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니 큰 민족을 이루는 새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세상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많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추위와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 몸을 괴롭혀 연약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천만 불이 주어졌는데 백불 주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호수는 바닥이 드러날 수 있어도 바다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무한대로 공급되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억울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이나 인과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언제나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적은 것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하더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러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건입니다.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가 억울했습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내 이익을 먼저 구하려는 억울함이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고

챗GPT가 교계에 미칠 영향력



크리스 최 목사
CRC 한인사역부 총괄 담당

7년 전 섬기던 교회에서의 일이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셨다. 매주 서너 편의 설교문과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분이라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 고충을 말씀하던 끝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가까운 미래에 성경본문, 주제, 키워드, 결론 등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설교문이 실행되어서 나오면 좋겠다” 고. 꿈만 같은 얘기였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ChatGPT(챗GPT)’가 바로 그것이다.

ChatGPT는 2022년 11월 30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오픈AI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생성적 사전학습 변환기’란 의미를 담고 있는 Chat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이다. 일론 머스크는 “ChatGPT를 가리켜 구글을 능가할 Game changer가 등장했다” 고 말했다.

구글로 대표되는 기존의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답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링크를 타고 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ChatGPT는 사용자를 어디 안 보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준다.

심지어 창작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반성문을 써줘’, ‘대표 기도문을 써줘’ 같은 요구에도 제법 훌륭한 답변을 제시한다. 상황 판단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인간에게도 쉽지 않은 기술이다. 논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필자는 인생을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로 살아왔기에 이런 획기적인 것은 빨리

경험해 봐야 했다. ChatGPT의 기술이 어디까지인지, 실용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확인해 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아직 보완할 것은 많이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기술임을 감안할 때 또한 계속해서 자가 학습한다니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짐작할 수도 없었다.

이 기술은 아마 모든 인문학계, 글을 쓰는 사람들의 사회,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 모든 지구상의 교육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듯하다. 특히 인문학, 교육계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해본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의 깊이 있는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따라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ChatGPT는 그 생각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자가학습을 통하여 기계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스스로 배운다는 것이 무섭다. 인간이 놀고 자는 동안에도 애는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지치지도 않는다. 목회자라고 치면 하루 종일 계속해서 설교를

뿜아내고 있다는 얘기가.

필자가 신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의 과정을 지나오며 알게 된 것은 모든 목회자들은 끝없는 집필가들 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서적을 읽은 후에 독후감 제출, 책과의 대화의 Reflection Paper, 졸업을 위한 논문을 쓰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는 매주 2-3편의 설교문을 기본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고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순식간에 해내는 분이 바로 이 ChatGPT다. 여기에 설교 본문과 키워드 서너 개만 넣으면 순식간에 설교 한편이 푹딱 나온다. 또한 이 앱은 도덕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정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인간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목회자에게 이 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각한 위협이 될까? 적절한 도움이 될까?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목회를 더욱 혁신적으로 감당해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의 고삐를 잡아보자.

연재 ‘쭈쭈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목사
박상원 목사

주님께서 파견한 특파원, E
나와는 대학 동창생으로 대학 졸업 후 인민무력부에서 종군기자로 근무하던 E가 1998년 봄에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별집 속에 있는 별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별집을 사정없이 쏘서 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얘기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와 늙자 그 얘기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도무지 잠이 들 수 없었다.

다음날 다른 동료에게 E가 한 말을 전하니 나를 딱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눈치가 도깨비 방망이구면. E가 왜 그런 말을 했겠냐? 당연히 자네가 새겨들으라고 한 말이지 않은가?” 동료에 의하면, E는 그날 나를 정면으로 도발하는 말을 한 것이다. 내용인즉, 내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노동당 타도’를 외쳐대니까, 그렇게 해서는 핍박만 심해질 뿐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괜히 노동당을 건드려 사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뜻이었다.

사람이 총명하지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험악한 세상에서 밥술이나 얻어먹으려면, 미련하기만 한 나는 동료의 해석을 듣고 E가 나를 망신시킨다고 생각해서 몹시 화가 났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 주리라.’ 사실 E가 도적질이나 하는 내가 딱해서 한 말이고, 주님이 그를 통해 내게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인데도, 나는 미련해서 도무지 듣는 귀가 없는 것이다. (계속)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것입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하나님 나라의 정의, 진영 논리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타데우스 윌리엄스 | 이제롬 역
개혁된실천사 | 520쪽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당파 전쟁 중이다.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미국교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적어도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는 '사회 정의'에 관한 기독교의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합당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2022년 Truth Matters 컨퍼런스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웬 스트라첸(Owen Strachan)이 '사회 정의'를 비판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벤 사피로나 조던 피터슨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중을 진실로 깨우치려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더욱더 이 문제를 성경의 관점으로 바르게 제시하여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밝고 선명한 빛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엔 미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관련 서적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칼 트루먼 <신좌파의 성혁명과 성정치화> 부흥과개혁사, 2022/ James Lindsay & Helen Pluckrose <Cynical Theories: How Activist Scholarship Made Everything about Race, Gender, and Identity- and Why This Harms Everybody> / Scott David Allen <Why Social Justice is Not Biblical Justice> / Rod Dreher <Live Not by Lies: A Manual for Christian Dissidents> .

감사하게도 이 중에서 타데우스 윌리엄스의 책이 국내 출간되었다. <사회 정의에 대한 기독교인의 12가지 질문: 비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불의에 맞서라>는 책이다. 개혁된실천사에서는 스콧 데이비드 알렌의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사회 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

이제 한국교회도 우리 문화와 사회, 그리고 교회 안까지 침투한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정의에 경종을 울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사회를 계급으로 나눠 억누르는 자와 억눌리는 자로 보는 관점에서 '정의'를 규정하게 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에게 경고한다. 또 통계적·역사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근거 위에 주장되고 있는지 고발한다.

저자인 타데우스 윌리엄스는 이 책을 통해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두고 있는가? ©픽사베이

독자가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는 진영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쪽만 편드는 것이 아니다. 억눌린 자를 모른 채 하자는 게 아니다. 사회적으로 불의를 당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다거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의'를 성경이 정의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말한다. 각 장을 마무리하는 짧은 글에서 독자는 실제로 저자의 주장에 따라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정의를 추구하다 하나님은 해로 벗어나게 된 이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

을 수 있다. '사회 정의'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에 관하여 나는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이 책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선포하고 실현해야 할 '정의'가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교회의 정의로 삼기 원한다면 당신에게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목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Handwritten-style text with illustrations of a heart, a cross, and a person. Text includes: '인직 우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생결함고 다음에 한평함고 관용함고 양순함고...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JAMES 3:17'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글루코산 아연, 크롬, 홍화씨유, 달맞이꽃 증자추출물,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러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관계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태너 <벤조 레슨>과 <감사기도를...>

인종차별 뛰어넘어, 그림으로 말씀 전한 화가

인종적 편견 뚫고, 성경화가로
입지 확고히 굳힌 개신교 화가
흑인들 있는 그대로 보길 호소
인종차별 해답, 성경에서 발견

흑인이라는 이유로 부득이 고국을 등지고 타국에 체류하면서 창작에 매진한 화가가 있다. 헨리 오사와 태너(Henry Ossawa Tanner, 1859-1937)는 아프리카 감리교감독교회(AME) 목사인 벤자민 터커 태너(Benjamin Tucker Tanner)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획득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어 많은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 북부로 탈출했는데, 그의 어머니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태너는 펜실베이니아 미술 아카데미의 토마스 에킨스(Thomas Eakins)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술가로 소양을 쌓았다. 토마스 에킨스가 인체에 대한 세심하고도 철저한 분석을 강조한 덕에 조형적 기본기를 갖추었다. 에킨스 역시 태너의 초상화를 그려줄 만큼 그를 총애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문을 나오면서 발생하였다. 보수적인 지역사회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다. 19세기 말 미국에는 인종 차별이 만연해 있어, 흑인들이 예술가로 활동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파리 행이었다. 파리는 인종 차별이 심하지 않았고 미술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태너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는 쥘리앙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장 조셉 콘스탄트(Jean Joseph Constant)와 장 폴 로랑(Jean Paul Laurens)의 지도를 받았다. 그들은 태너가 파리 화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태너는 빛과 어둠의 효과를 살려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몇 년 후 미국에 단기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발표한 작품이 <벤조 레슨>과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초기작 <벤조 레슨>(The Banjo Lesson, 1893)은 흑인에 대한 편견을 바꾼 '트로이의 목마'(Russ Remsey)였다. 태너가 귀국하였을 때 미국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태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흑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릴 테지만, 이것이 그가 추구하고 가야할 길이라고 보았다.

화면에서 인자한 할아버지는 손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벤조 연주법을 가르치고 있다. 벤조는 아프리카 전통악기를 개량해 만든 것으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의 애환

이 서려있는 악기이다. 전체적으로 그림은 우울한 분위기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은 주위 분위기와 다르게 다정한 모습이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손자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작가는 실내 두 인물에 역광을 사용하고 있는데, 빛은 벽난로에서 오는 것과 벽면에서 오는 것으로 구분된다. 두 빛은 고국인 미국과 두 번째 고향인 프랑스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히지만, 이 빛은 주인공들이 직면한 시름이랄까 깊은 그늘을 암시할 뿐이다. 이는 당시 흑인들이 겪어야 했던 모욕과 편견, 즉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을 '트로이의 목마'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백인들은 흑인을 광대처럼 우스꽝스럽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너는 이 작품에서 흑인을 품위 있게 그렸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기술을 전수하는 고상한 인물로 등장시켰다. 마치 흑인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것을 호소하는 것 같다.

태너는 유럽에서 돌아온 후 "흑인들 삶의 진지하고 애처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 그들에게 가장 큰 연민을 품은 사람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에 발표한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The Thankful Poor, 1893-1894)은 작가가 종교적인 주제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으로 알려진 '장르' 그림 (일상 또는 일상적인 가정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상적으로 유사한 그림은 엘리자베스 너스(Elizabeth Nourse)의 <가족의 식사>(1891)에서 찾아진다. 엘리자베스 너스의 작품이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콜롬비아 전시회>에 출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너는 이 그림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너스의 그림이 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비해 태너는 인물을 두 명으로 압축하여 식사 전 기도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식탁은 초라하기만 하다. 두 개의 빈 접시와 컵, 음식이 담긴 그릇 하나가 전부이다. 비록 식탁 위에 먹을 것이 없지만 그림에도 할아버지는 경건히 감사기도를 드리는 중이다.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미국의 비평가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한 저널에서는 그의 그림에 대한 찬사가 인종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비난하였다. 미술사학자 너리



헨리 오사와 태너, 벤조 레슨, 124.4x90cm, 캔버스에 유채, 1893.

스 우드(Naurice Frank Woods)는 이 작품이 "아프리카 미국인의 종교성을 탐구한 최초의" 회화이자, 태너의 후기 종교 그림의 '예고편'으로 평가하였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태너는 자신의 정체성에 바탕하여 성경 화가를 전면에 내걸게 된다. "내가 종교화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 물론 나는 종교적 정서를 몰려 받았다. 이 점에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정서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확신에 따라 지적인 신앙을 품기로 결정했고, 그런 신앙을 얻게 되리라 소망하고 있다."

성경 화가가 된 태너는 아버지의 의사도 얼마간 작용한 것 같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열망, 곧 그가 존경받는 성경 화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셈이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 이후 성경적인 서사를 다룬 작품이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과거의 태너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병자를 고치시라>,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 <나사로의 부활>, <수태고지> 등 종교적인 그림을 발표하면서 그림으로 말씀을 전했다.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든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집약케 한다.

화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흑인이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편견이 없어지기를 바랐다. 우리가 그들의 참

모습을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자리잡은 타자에 대한 수많은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식시켜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경에는 약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차 있다. 태너는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헨리 태너는 결출한 화가들이 경합하는 미술의 본고장에서 성경화가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하다 1937년 파리 외곽의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태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 존재였으나 1969년 스미스소니언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를 통해 다시 부각되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백악관을 비롯하여 루브르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그가 추구했던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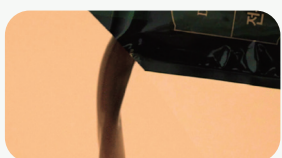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녹용,
한국 비무장 지대 유한양행 전용 농장의 통 인삼.

유한건강생활
New Origin



70ml x 30 포



전녹용 마일드

녹용의 분골부터 하대까지 전체를 담은 뉴질랜드산 전(全)녹용과 23가지 전통원료를 함께 담아낸 건강 한 포.

전녹용 마일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
- ✓ 원활한 영양 공급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 ✓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체력 저하를 느끼는 직장인
- ✓ 여행, 출장, 운동 시 편리하게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 ✓ 고급스러운 선물용 제품이 필요하신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cellreon.com
인터넷 검색창에 "셀리온"을 입력하세요!

셀리온



건강하고 아름답게
셀리온

판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738-1188
매	부에나비	소스몰 1층	714-523-8100
처	엘바인	시온마켓 정문 원편	949-800-8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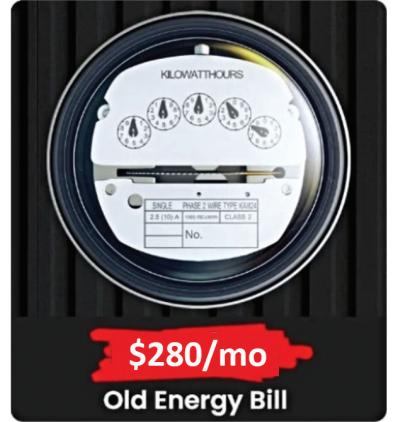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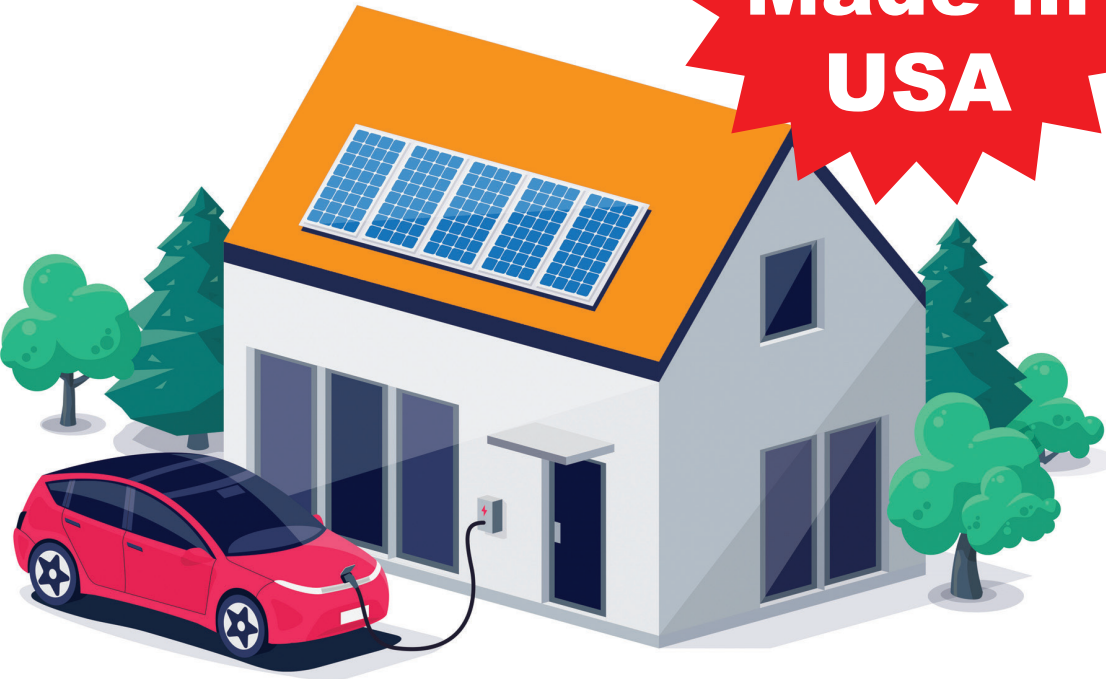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213-500-8000
714-702-0151

CELLS 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